

전통 복식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 - 근대성, 탈근대성과 관련하여 -

임영자* · 유순례**

※본연구는 BK21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세종대학교 박사과정 가정학과 의상전공

목 차

1. 서론
2.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
3. 문화화 복식의 근대성, 탈근대성, 세계성
4. 한국복식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1. 서론

1980년대의 화두가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2천년대 인류사회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심개념이 되고 있다.¹⁾ 이미 전세계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으로 단일 교류권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교통 통신의 대중화는 전세계사람들의 지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양식, 취향, 관심사가 비슷해 졌고 이제 지역적 거리의 차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소연방이 무너지고 20세기를 지배하던 거대담론의 하나인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자 국적과 이념에 따른 경계와 거부감도 많이 완화되었다. WTO 체제가 그 어느때 보다 많은 회원국을 거느린 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되어 세계는 거의 단일 체제의 지배를 받게되었고 뉴욕증시의 주가 변동은 세계 각국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헐리웃으로 대표되는 영화, 음반 등의 문화산업은 세계 동시로 진행되며 이는 세계인을 비슷한 생활양식, 사고체계로 만들어 갈 뿐 아니라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야흐로 전세계는 일일생활권 및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거대한 지구촌문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1) 말콤 워터스저, 이기철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8, p11

이러한 가운데 1993년 한국의 문민정부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국정지표로 세계화(segaewha)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국정 계획을 수립, 실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사회과학적, 철학적 개념의 세계화라기 보다는 적극적 세계진출과 세계시장의 우위점유, 우리의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자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전까지 세계화의 주변부적 대상에서 주체적 우위권을 점하려는 민족주의적 의도도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의 주체를 시도하는 한국의 세계화와 전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세계화를 실천해 왔던 시각에서의 세계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개념은 이에 따른 정치, 경제, 문화의 변동상황을 조망하는 것으로 한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류의 시대적 과제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우리 생활에서 세계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십세기에 세계화를 주도했던 서구와 일방적 유입으로 세계화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과 문화 사이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를 고찰하고 복식과 문화 부문에서 세계성과 근대성, 탈근대성의 관련 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찰은 한국복식의 세계화 과정을 이루는데 올바른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계성 획득을 위한 기본 미학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개념을 도출해 내었다.

중요단어 : 근대성, 탈근대성, 세계화, 세계성

2.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

세계화는 서구에서 생성 보급된 언어로 어원을 영어의 globalization에서 두고 있으며 지구화라고 번역될 수도 있으나 세계화와 지구화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화와 지구화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고 정의되기도 했지만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연구성과가 축적된 지금에 와서는 의미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이자 개별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세계적인 가치, 기준, 협력의 관행이 확산되는 과정²⁾ 이고 지구화는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두가 하나의 지구적인 울타리 안으로 동질화 해 가는 영토적인 분절화에 기반한 근대 국민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보거나 세계화는 지구화로 가는 과도기적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³⁾ 우리나라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세계화와 지구화가 그 의미의 구분 없이 필자의 주관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정의 지표로 세계화란 용어가 채택되고 공공용어로 쓰이게 되자 지구화 보다는 세계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국제화가 있다. 지구화가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2) 손호철, "세계화와 민족 국가의 항방", 세계화와 민족 문화의 발전, 한국경신문화연구원, 1996, p61.

3) 전계서, p61

4) 신행철의 저, 세계화시대의 사회 문화의식, 집문당, 1997, p20

5) Peter Dickin, Global Shift: 손호철에서 재인용

6)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as a problem, 윤민재 번역,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사회문화연구소, 2000 p7

7) 말콤 워터스저, 이기철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8, p11

어원도 전혀 다른 말이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 간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계화와 개념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용되고 있는데 상대적인 중심축이 두 국가간에 있는가 아니면 전지구적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한다⁴⁾.

즉 국가간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경쟁과 분업이 이뤄지고 나라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국제화이고 세계화는 개별 민족 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지구적 울타리 안으로 동질화되는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제화는 세계화의 중간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세계화가 채택되었으므로 국제화에 강제적 의미를 더한 것을 세계화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국제화는 국경을 가로질러 경제활동의 지리적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질적으로 다르다. 보다 발전된 복잡한 유형의 국제화인데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제 활동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것”을 말한다.⁵⁾ 이렇게 볼 때 국제화와 세계화는 동일한 현상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로 보여진다. 전 지구적 확산도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국제화이고 전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인 것이다. 국제화는 상호 의존과 유사한 개념이며 국가의 주권적 속성에 대한 변화를 전제하기보다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증진되는 현상으로 초국적 행위자들의 행동보다 국적에 기초한 행위자들의 행동을 중시하며 세계 전체와 인류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해외시장 진출과 우리의 개방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시공간으로 압축되고 상호 의존의 심화로 세계와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과 세계적 수준에서 관리가 증대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존재적 성격이 세계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볼 때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은 국가의 주권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교류와 상호의존이 심화되어도 국가의 주권적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국제화이고 국가 형태가 도전을 받으면 세계화라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는 상호 의존의 정도와 주권적 속성, 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호 의존성은 변하였지만 인식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리 정부가 표방한 세계화는 외국 시장에 대한 우리문화와 상품의 적극적인 진출과 이로 인한 세계적 선진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민족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세계화와는 방향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화는 세계의 압축과 전체로서 세계에 대한 의식의 강화를 말한다.⁶⁾ 사전적 정의로는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 세계화하는 행위 등으로 나와 있고 세계의식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하다(globalize) 세계화 하는(globalizing)이런 단어들은 1960년대에 이르러 상용되었으나 이때 세계화는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의 세계주의(one worldism)나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세계주의가 사용되었고 1980년대 부터 학계에서 이 개념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⁷⁾

Robertson의 세계 압축의 개념은 국가 체제들 사이에 상호 의존의 수준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취향의 동질성, 시간의 동시성을 함축하는데 즉 물질적 상호의존 가운데 단일체제로서 재생산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세계영역을 구성하는 요인을 1) 개인 자아(individual self) 2) 국가사회(national society) 3) 국가사회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society) 4) 일반적 인류로 보았고 이들 요인들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개별화, 국제화, 근대 민족국가화, 세계적 시각의 성립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곧 세계화의 사회화 과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경로를 5단계로 나누었다.

- 1) 생성단계(1400-1750) 기독교 왕국의 해체, 국가공동체 출현, 세계탐험, 식민지 건설
- 2) 초기단계(1750-1875) 민족국가 형성, 국가간 외교 수립, 국제법 성립
- 3) 이륙단계(1875-1925)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문화적 교류, 1차세계대전, 국제이민
- 4) 투쟁단계(1925-1969) 국제기구 탄생, 2차대전, 제3세계출현
- 5) 불확실성단계(1969-1992)우주탐험, 세계공동체, 세계환경문제인식, 세계적 대중매체

이러한 경로를 볼 때 세계화는 자본주의나 모더니즘보다 앞선 것으로 근대화는 세계화를 가속화했으며 20세기에는 인류의 의식과 생활에서 일상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세계화에 대한 의식을 가속화했으며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시차를 제거했다. 근대화의 기술적, 정신적 산물이 세계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세계화는 16세기이후 근대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지구상에 있는 국가 및 사회체제의 연대적인 상호 체제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의 압축과 시간의 동시성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지구거주자들의 의식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를 붕괴시킨다. 따라서 일반적 합리성이 적용되는 부분과 개인적 특수성의 중요한 영역이 분리된다. 이러한 분화는 삶의 기회와 양식,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노동과 가정,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구분을 가져온다. 세계화는 위험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⁸⁾

8)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Time & 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Mike Featherstone, Global Modernity, Sage, Publishment,1995.

세계화 이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 흔히 세계화는 전지구적 획일화, 단일화로 이해되며 이때 단일화의 모델은 종종 서구의 것이 제시되었고 일방적 유입과 수입은 문화 제국주의적 양상마저 불러일으켰다. 세계화는 지방성이 유린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고 세계화의 중심 모델인 미국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한 지역성의 시점이 성립되는 것이다. 즉 민족성, 종족성, 민족체 이런 개념들은 타민족, 타종족에 대응했을 때 의미가 부각되며 이들 각자가 지니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영역은 인류의 보편성에 비추어볼 때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든스는 세계화를 현존과 부재의 교차 즉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의 사건과 현상들이 지역적인 맥락들과 교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근대성은 역사적 양식으로

제도와 기본적 경험의 동질화를 초래했으며 근대성과 세계화의 결합은 이것을 전세계적으로 확산 시켰다. 근대성이 자연스럽게 전개된 유럽과 달리 기존민족의 학살로 나타난 미국, 위협적인 외부의 침탈에 대한 도전으로 일어난 동아시아,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성이 전래된 아프리카 이런 지역적 사례들은 세계화의 작업에서 공간과 지리,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세계화는 지리적으로 독특한 문명들이 상호 침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질화와 동질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처음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모더니티가 전세계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확산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세계에 산재한 특징적인 문화 요소와 생활양식이 다시 갱점화되자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세계성과 함께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갈등이 향후 10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되었고⁹⁾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획일성을 막아줄 대안으로 또는 다양성의 공급원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대두되었다. 새로 대두된 지역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20세기 이전의 것과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20세기 이전에는 서구 우월주의적, 중심주의적 시각의 탐구였다면 20세기 후반의 것은 모더니즘의 중심주의적 시각을 벗어난 탈중심, 탈구조의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접근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1991년 옥스퍼드 사전에 'Glocal'이란 단어가 게재되었는데 이는 Global과 Local의 합성어로 세계지역화를 뜻하는 것이다.¹⁰⁾ 1990년대 전 세계 기업 마케팅의 주요 개념은 세계 지역화였다. 이는 미시 마케팅의 범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수한 시장 개발을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광고하는 것이다. 세계지역화는 세분화되는 소비자구성과 소비자 전통 형성에 다양성을 부과 해 주고 중요한 문화자본 형성의 기초가 된다.¹¹⁾ 지방성의 개념은 헤게모니로 작용하는 세계성에 대해 저항, 반대하는 형식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지역성, 민족성, 부족성은 세계성에 다양성을 부과해 주지만 또한 세계화의 진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는 민족문화가 되지만 문명은 세계적 색채를 띠게 된다. 민족주의자, 지방주의자들은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집착과 강조의 의도를 보이지만 범세계주의자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합리적 구조에 따라서 지역성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주의 없는 범세계주의란 성립될 수 없다. 민족주의 기원과 발달 과정에서 살펴보면 민족적 정체성은 근대에 이루어진 특수주의 형식으로 국제화 과정의 일부로서 고착된 것이다. 글로벌 문화의 개념을 파악하는 한가지 방식은 그것이 많은 지역문화의 상호 연결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근대화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전의 생활 양식과의 단절 내지는 불연속의 양태를 낳았는데 근대화가 성숙되면서 이전의 전통은 복원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는 시간적으로는 전통성과 공간적으로는 지역성과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지역화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국제적 상품시장, 한정된 지구자원, 전세계를 잇는 정보 통신 기술, 생태학적 연관성 지구내의 분파성과 전통적 형식을 허물고 있다. 근대화, 세계화가 인간생활의 세계적 동질화와 정형화를 야기 시킨 만큼 이것이 과연 인류역사와 문

9) 마이클 마자르저, 김승욱 역, 트랜드2005, 경영정신, 2000, p269

10) 이말은 일본의 농사용어인 도차쿠카에서 온 것으로 같은 농작 기법을 지역적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기업에서 세계화 시대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케팅의 기법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본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서구기업들에게도 이 개념이 전 해졌고 이에 따라 이용어도 영어화 된 것이다.
11) 부루디외 (1984) 로버트슨 1995에서 재인용

화에 기여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것은 지역적인 것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지역적인 것은 그 지역성이 인정되는 순간 세계성과 본질을 공유하게 된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은 세계적 보편성을 실현하는 창조의 기제로서 재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통의 형성과 재형성은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적 문화 전통의 관점에서 현대문화를 파악한 연구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탈식민지 만이 고유사상과 서구사상 사이의 타협 가능한길로 제시되었다.¹²⁾ 서구문화에 대한 거부와 불만은 형식적인 토착주의라는 것이다. 20세기의 세계화는 전세계적인 서구화를 이루었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는 비난받고 경계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 아프리카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계와 탐색을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 미국문화 수용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문화 생산자들에게 지역적 특성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세계성을 확보한 문화 상징들은 지역성에 의해 새로운 의미의 창조가 가능해 졌다.¹³⁾ 세계 공간으로서의 개념 출신지 생산자의 개념을 지방성과 분리시킨다. 현대 다원성의 중요한 측면은 문화의 관계적 개념에 대해 경계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혼용화(global hybridization)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의 세계화는 민족성에 대한 관점에서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것 처럼 보이고 반드시 동질화, 통합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 연관성과 탈영토화, 민족적 다원주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민족성과 세계화와의 관계는 1)세계화는 동질화의 과정이자 동시에 분화의 과정이므로 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인정하므로 세계화를 다원화시킨다. 2)세계화는 국가와 민족적 개념을 약화시킨다. 3)세계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것들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중심에 있던 것을 주변화하는 해체와 탈중심의 포스트모던과 맥을 같이 한다.

12) 아피아. (1992) 로버트슨에서 재인용.

13) 예를 들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셰익스피어는 영국만의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해석, 각색된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원전 셰익스피어와는 별도로 동일한 창조로 평가 받는다.

3. 문화와 복식의 근대성, 탈근대성, 세계성

세계화는 상징물의 매개로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진행속도가 가속화된다. 화폐라는 상징물로 매개되는 경제분야는 비물질적인 거래와 생산의 형태를 이룰 만큼 세계화가 가속화 되었고 정치적 세계화는 범세계적 공동적 가치와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가치, 선호, 취향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관계들은 세계적인 동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적 삶을 습득(culturalization)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질 만큼 상징재의 소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완전한 문화적 세계화는 개개인이 자기표현이나 소비를 함에 있어서 제한 없이 접근 할 수 있고 차별화된 가치, 취향, 스타일의 선택의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세계화된 문화 체제 아래에서는 정통성의 권위는 유지되면서도 세계어느 곳에서든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가치와 선호체제의 지속적인 순환이 허용된다. 이러한 흐름은 전에는 상호 배타적이던 문화 특성들이 서로 자신들을 상대화하여 연결시키고 따라서 특정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초국적인 문화의 탄생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¹⁵⁾ 이러한 것을 가능케한

14) 말콤 워터스저, 이기철 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8, p157
15) 전계서 p157

16) 전계서, p162

17) 상호문화성이란 상호주관성과 같은 개념으로 주관으로서 다르지만 이중에 공통된 주관이 존재하듯이 문화에도 각자 독특한 개성이 있지만 공통된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8) 신행철외, 세계화 시대의 사회 문화 의식, 서울, 집문당, 1997, p105-113

사상적 체계는 근대화, 탈근대화, 세계화 사회이론 이다. 근대화가 개인과 가족을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해체하며 현실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의 관련성을 부정함으로써 결속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탈근대화는 근대화에 의해 제시된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관습과 관행을 인정하고 이것의 근원을 찾으려 하며 관습의 차별성을 인정했다. 삶의 모든 분야를 재구성할 목적을 가진 사회문화적 운동이 대두되었다.¹⁶⁾ 세계화는 서구문화의 보편화에 대해 지역적 특정주의나 하위문화가 보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종족, 민족, 국가를 초월한 사회공동체의 추구, 문화의 우월성을 배제하고 다원성, 선택지향성을 추구하는 세계화의 담론이 제기되었다. 세계문화는 상호 문화성의 개념하에 공동의 세계문화를 창조하자는 것이다.¹⁷⁾ 세계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은 이것저것 합쳐놓은 절충주의가 아니라 문화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성격들이 깊은 유대감과 내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⁸⁾ 이 상호적이라는 말은 문화와 철학들 사이에 상관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차이점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인종, 문화, 철학, 언어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개념은 전세계적 문화 교류시대에 하나의 문화가 세계를 독점하거나 자국문화 우월론적의 세계 이식주의를 경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상호문화성은 인식론적 겸허함을 바탕으로 하며 타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다원적 상황에서 나온 입장으로 근대성의 중심을 이룬 서구사상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관점이고 문화나 철학에 대한 근대 이후의 새로운 통찰의 방식이다. 중심주의가 배제되는데 이것은 문화 해석에 있어 근대성이나 지역성 모두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고 일방적인 문화 척도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적인 정신과 태도는 문화적 공존과 혼합을 위협이나 소외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복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세계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복식이 사회 경제적, 사회 계급적, 정치적 상징성에서 자유로와짐을 추구하고 의장의 독립과 복식조형성을 획득하는 것이 근대성의 핵심이었다. 새로움에 가치를 두고 전통과 규범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을 거부하며 진보의 원리를 채택하는 근대성은 복식에서 합리성의 추구, 변화의 가속화, 새로움에 대한 선호, 동조와 구분의 욕구를 반영한 대중패션의 정착, 복식이 인체로부터 독립한 디자이너의 표현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근대적 성격을 정착시켰다. 근대복식은 패션의 자율적 원리와 상황적 표현을 대자적 보편성에 근거한 윤리적 맥락에 의해 개인 취향의 집합체로서 사회의 취향을 형성하게 된다. 이성적 의복, 실용적 의복, 계급성에서 벗어난 순수한 의지의 이데올로기 표현, 예술적 의지의 표상으로 부각되었다. Haute Couture로 대표되는 근대 디자이너 그룹은 정기 컬렉션에 의해 미적 기준을 제공했고 이것은 패션의 집중화, 국제화, 민주화에 기여했다. 근대 패션은 모더니즘의 자율적 삶과 융합되어 양식적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20세기 후반부 탈모던의 사조와 함께 모더니즘적 규율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20세기 거대 담론에 의해 도덕적, 미학적으로 정당화되는 전통적 인생관에 의한 현재성이 증시되는 삶이 거대담론의 중심부가 해체되고 삶의 구조 문화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혼재되고 지배력을 잃게 됨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삶의 기준이 되게 되었다. 인간에게 가장 지배력이 있었던 현재성, 현실성도 사이버 공간에 의해 대체되어 현재적 초월주의가 현재속에서 실현되고 있고 개인에 의해 창조되던 문화와 예술이 문화적 대중을 지배하게 되었다. 패션은 불확정성으로 대변되는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 푸어 룩(poor look) 하위문화 패션이 부각되었고 취미의 차별화가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 빠르게 흐르는 모더니즘과 탈모더니즘의 경계를 허무는데 기여했고 키치(kitch)미학의 성립으로 복제품과 패러디(parady)가 자체의 미적 영역을 확보했다.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거대 트렌드의 성립을 가능하지 않게 했으며 이제 개인의 욕망에 근거한 미적 상상력, 삶의 형식이 패션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탈근대의 패션의 흐름과 관련하여 패션의 세계성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또는 탈근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적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식의 세계성은 상호문화성의 개념하에서 보편적 상징성과 미의식을 확보하고 접근의 용이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시간적 동시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모더니즘의 기술적 진보와 합리주의 탈모더니즘의 가치관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복식의 세계성은 모더니즘, 탈모더니즘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상호 영향을 주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시대 담론인 것이다.

4. 한국 복식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한국복식의 세계화를 위한 개념에는 1)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섬유 및 패션 상품의 생산 및 이의 세계적 공급 2)한국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과 이의 세계적 보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적 동질화와 부족성의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상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사적 이행의 특징으로는 문화경제와 지역경제의 접합으로 지역적 전통에 내장된 다양한 특성들을 과거와 미래의 시간속에 접합시켜 새로운 문화 생산을 이뤄내는 데 있다. 이러한 문화 경제는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매카니즘으로 이중 분절되어 있고 정치, 경제의 외곽에 위치하던 문화가 정치 경제와 접합되어 사회 속에서 적극 결합되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문화정치의 토픽은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문화 행정과 정치의 뜻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최극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삶의 정치, 일상의 정치, 생활정치와 맥이 통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던의 문화와 열린 패션²⁰⁾의 미학과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문화적 상징은 상징자본으로 확실한 위치를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는 막대한 영향력과 부가가치의 산실이 될것으로 예견된다. 상징자본의 형성에 주요 기제가 될

19) 심광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지방문화 발전의 과제와 전망, 1996, p197
20) 열린 패션이란 민주적 혁명, 변형되는 상품, 청소년 미학, 다원주의, 삶을 위한 패션, 탈권력 의지, 반형식주의 특성을 지니는 미래 제안적 패션의 개념이다.

민족정체성은 이전과는 다른 구성요소가 개입될 것이다. 민족 정체성이 하나의 세계성을 이루는 요소이지 자국 우월주의적,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전시대의 문화 침탈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국적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교류는 서구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이뤄져야 진정한 세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가 비판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방적이고 미국화된다는 것이다. 상호교류와 다양화의 시각을 갖고 문화의 일방적 유입이나 전래가 아닌 상호성의 원칙 아래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대 패션을 이끌어 가는 5대 도시의 컬렉션이나 패션쇼 등을 기획,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컬렉션에서도 세계성과 민족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해서는 패션정책 담당자의 세계성에 대한 정책이 형성되고 학계의 세계화를 위한 미학적 담론의 배경 제공과 패션 산업계의 세계성과 민족성을 살린 디자인의 개발이 이뤄지는 상호 이해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의상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의복의 외형뿐 아니라 내부의 비례감각도 활용해야 하고 전통적 착장법 및 구성방법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²¹⁾ 또한 의복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 이미지와 트렌드를 조화시키고 사용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하여 기능성과 유행성을 조화시킬 것이 제시되었다.

21) 김찬주, 장인우 한국현대 패션에서 한국적 디자인 전개 과정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48호, 1999, pp.19-20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식의 세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세계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2) 국내 컬렉션에 세계화에 대한 기획을 추진한다.
- 3) 미국, 유럽 외의 지역에서도 민속, 문화, 패션 정보를 수집 연구하여 전세계적인 안목을 높인다.
- 4) 유학생의 파견지역을 다양화시킨다. 배우고 오는 유학에서 가르치는 해외 진출의 길을 모색한다.
- 5) 국내 교육과정에서 세계화, 민족화의 부분을 강화시킨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함의와 근대성, 탈근대성과 이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복식의 세계화를 모색해 보았다. 세계화는 동질화 과정임과 동시에 분화의 과정이며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인 만큼 복식 부문에서도 세계적 동시성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세계성을 형성하는 기저로서 민족성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복식의 세계화가 우리의 것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요구 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모방과 수용은 진정한 세계화의 정신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과정으로 세계교류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숭상이나 모방 또는 배척이 아닌 이해를 통한 교류가 이뤄져야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강내희, 세계화 지역화 시대의 민족 문화 정책, 정신문화연구원, 1996.
2. 구범모, 21세기와 민족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 금기숙,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43호, 1996.
4.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I, II, 복식37, 38호, 1998.
5. 김윤희, 복식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복식30호, 1996.
6. 김찬주, 장인우, 한국현대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언, 복식48호, 1999.
7. 손호철,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향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8. 신행철 외, 세계화 시대의 사회 문화의식, 집문당, 1997.
9. 심광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지방문화 발전의 과제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0. 이봉철, 세계화 지향과 그 사회 문화적 함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1. 유안빈 외, 세계화와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2.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45호, 1999.
13.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14. 롤런드 로버트슨 외, 윤민재 편역,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사회문화연구소, 2000.
15. 마이클 마자르저, 김승옥역, 트렌드2005, 경영정신, 2000.
16. 아오키 다모스저, 최경국역, 일본문화론의 변용, 소화, 2000.
17. 장 피에르 바니에르저, 주형일 역, 문화의 세계화, 한울, 1999.
18. 말콤 워터스저, 이기철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8.
19. 임영자, 유순례, 한국인의 미의식 변천 과정과 복식미의 특질, 복식 50권 8호, 2000.

ABSTRACT

The Study on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Costume
-Connection With Modernity and Post-Modernity-

Young-Ja, Lim* · Soon-Lye, Yon**

*Dept. of Fashion
Design, Prof. of Se-
Jong Univ.
**Dept. of Home
Economics, Doctoral
cours of Se-Jong Univ.

In the 1980' s discuss in the postmodernism and at the 1990' s that is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the compression of time and space. That is the products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Global trends are the multiculturalism, localism, tribuism, etc.

These trends have a important effect modern fashion. 20th fashion have a modernity -variation, functionalism and popularity, postmodernity-uncertainty, multiculturalism, post structuralism, etc.

If Korean fashion have the globality, open to the world other country and culture, deep study of that, and view point of intercutureity.

This Study Suggest to achieve globalize of Korean costume.

1. Plon up base on the scholastic study of giobalization.
2. Promote global project of Korean collection.
3. Collect of ethnic, culture, information of fashion America, Europe, etc. and make high up our a sense of disorimation.
4. Manifold studing abroad
5. Strerghening of globalization and ethnic curriculum on Educational course